2026.07.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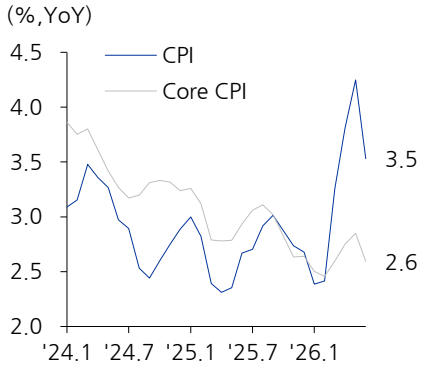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 / isbang@eugenefn.com

6 월 물가: 에너지 충격의 되돌림, 빨라진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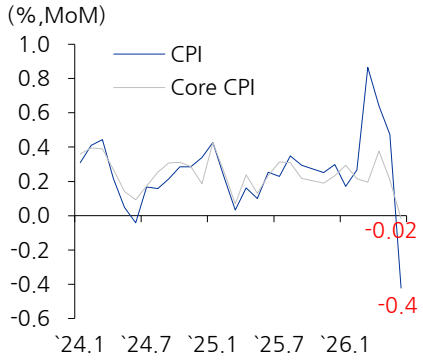
- 2026년 **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 대비 -0.4% 하락, 전년 동월 대비 +3.5% 상승**함. 전월 대비 하락 폭은 2020년 4월(-0.8%) 이후 최대임.
- 5월 +4.2%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3%대 중반으로 둔화된 것은 **수요 위축이 아닌 에너지 가격의 되돌림**에 기인함. 4%대 물가가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아닌 외생적 공급 충격의 결과였다는 기존 판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임.
- 미국-이란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며 **6월 에너지 물가는 전월 대비 -5.7% 하락,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함**. 휘발유 가격은 -9.7% 급락함. 3~5월 헤드라인 물가를 밀어 올렸던 '에너지 공급 충격'이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음.
- 연준의 장기 물가 추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**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(0.0%)**에 그치며 5월(+0.2%)에 이어 둔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짐.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+2.9%에서 +2.6%로 하락함.
- 6월 **주거비(Shelter)는 전월 대비 +0.1% 상승에 그치며 2021년 1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**함. 자가주거비(OER)는 +0.2%, 일반 임대료는 +0.1%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짐. 지난 4월 제기되었던 서비스 물가 고착화 우려가 일회성 통계 조정의 결과였다는 판단이 재확인됨.
- 주거비 외 서비스 항목에서도 물가 둔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남. 자동차보험(-2.0%), 통신(-1.5%), 의료 서비스(-0.1%)가 하락했고, 월드컵 특수에도 숙박비는 -2.3% 급락함. **근원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**에 그침.
- **근원 상품은 전월 대비 -0.1% 하락**함. 중고차 가격이 -0.2%, 의류가 -0.6% 하락했고 신차 가격은 보합을 기록하는 등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품 품목의 디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됨.
- **에너지 충격의 근원 물가로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**. 유가의 재상승이 없다면 헤드라인 물가는 3분기 중 +3%대 초반까지 낮아지고, **근원 CPI는 연말까지 2%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**이 높다고 판단함.
-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(3.50~3.75%)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. 다만 근원 물가 둔화가 연말까지 확인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.

6월 헤드라인 물가는 +3.5%yoy로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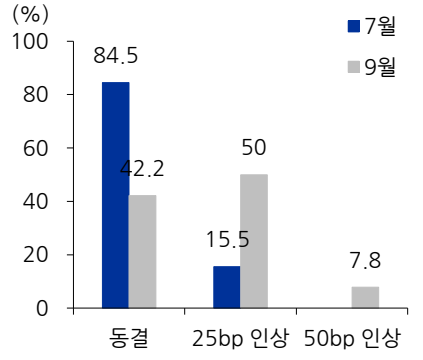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(0.0%)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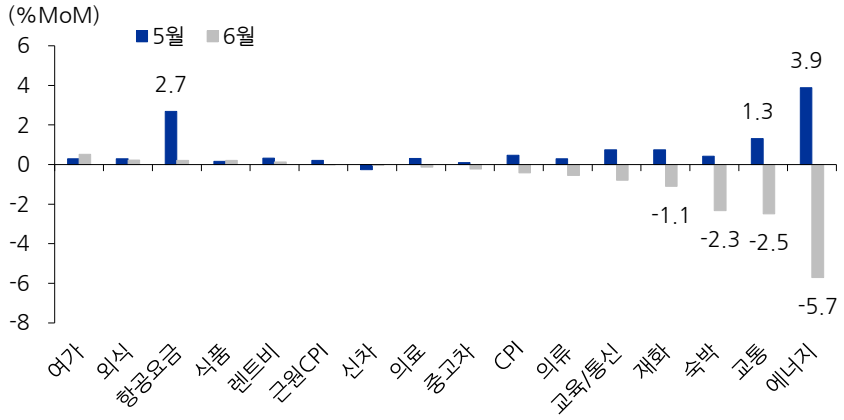
높아진 9월 FOMC 동결 가능성


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유진투자증권

주요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